

에도국화단

에도시대에 에도(도쿄)에서 발달했던 고전국화입니다. 당시 에도국화에서 중심적인 존재였던 집에서 중국화(中菊), 정국화(正菊)라고 불려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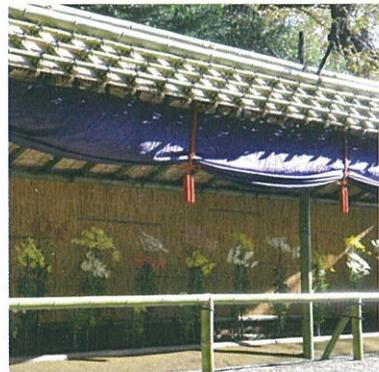
(1878년)



일문자국화단, 관물국화단

일문자국화는 꽃잎이 16장 전후의 겹겹으로 피는 큰 꽃송이의 국화입니다. 관물국화는 가늘고 긴 꽃잎이 방사성으로 피는 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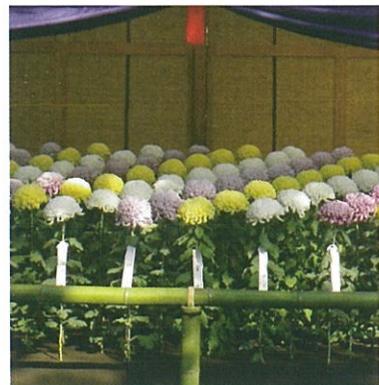
(1925년)



히고국화단

옛날에 구마모토지방에서 재배되었던 한겹의 고전국화입니다. 재배방법, 장식방법은 에도시대부터 전해내려오는 엄격한 양식을 지키고 있습니다.

(193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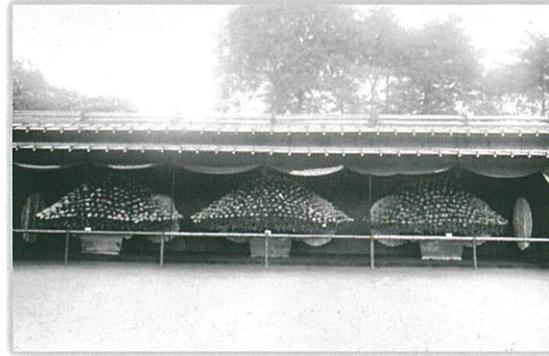


대국화단

국화의 대표적인 품종입니다. 39품종 311그루의 대국화가 노랑색 흰색 빨강색의 순서로 배열되어 같은 색의9송이가 45도 각도로 기울여져서 심어져 있습니다. 이 양식은 꽃들이 전체적으로 색조의 조화를 가추어 피어 있는 것으로 신주쿠교엔의 독특한 양식입니다.

(1884년)

황실전통을 계승한 전통적인 전지법으로 작성되어 있는 신주쿠교엔 국화화단



일본 원예품 중 국화가 일본에 유래된 것은 나라시대 말부터 헤이안시대 초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무로마찌(室町), 에도시대(江戸時代)를 걸쳐 발달을 거듭 메이지원년(明治元年, 1868년)에는 국화가 황실문장으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메이지11년(明治11年, 1878년) 관내성은 황실을 중심으로 국화감상회를 처음으로 국화배관(菊花拜観)을 아카사카(赤坂) 임시 황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전시용 국화와 당시 아카사카(赤坂)의 관내에서 재배되고 있었으나 메이지37년(明治37年, 1904년)부터 신주쿠교엔에서도 국화가 재배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이쇼(大正)부터 쇼와(昭和)에 이르러서는 국화회 전시의 규모, 기술, 디자인 등이 더욱 더 충실한 시기로 이때부터 신주쿠교엔은 팔레스가텐으로 세계각국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국화 화단전의 안내

공개일: 11월 1일~11월 15일

공개시간: 9:00~16:00

공개기간중에는 특별개원으로 월요일에도 개원합니다.

신주쿠교엔 서비스센터

우편 160-0014 도쿄도 신주쿠구 나이토마치 11
TEL: 03(3350)0151 FAX: 03(3350)1372
<http://www.fng.or.jp/shinjuku/>
<http://www.env.go.jp/garden/shinjukugyo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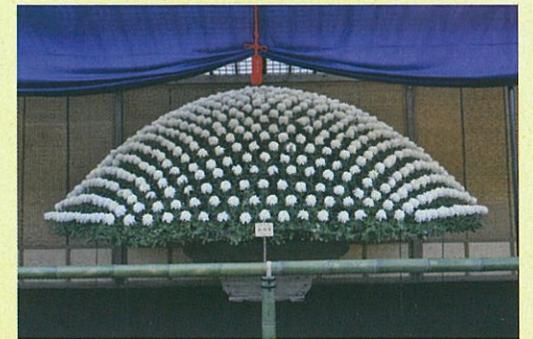
한국어



新宿御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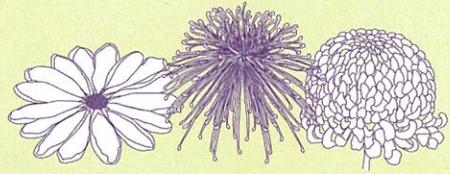
菊花壇展

皇室ゆかりの伝統を受け継ぐ



신주쿠교엔 (新宿御苑)
국화화단전

청신한 가풍의 우아함



菊

특색 넘쳐나는 국화



현애꾸밈새화단

단애의 바위에 자라나는 나무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그루의 작은 국화를 큰 그루의 모양으로 표현한 기법을 (현애작법)이라고 합니다.

(1915년)



이세국화, 정자국화, 사가국화단

꽃잎이 드리워지는 것이 특징인 이세지방의 이세국화, 통모양의 꽃잎의 향료의 정자를 닮은 칸사이지방의 정자국화, 꽃잎이 일어나는 것이 특징인 교토사가의 사가국화. 각지방색이 넘치는 국화꽃들로 이루어진 화단입니다.

(1955년)



대꾸밈새 화단

초겨울에 나는 짙은 1년동안 가지수를 늘려서 수백송이의 꽃이 피도록 재배한 것입니다. 이 화단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고 이방법은 신주쿠 교엔의 독자적인 방법으로 국화단중에 으뜸으로 불립니다.

(1884)



신주쿠교엔의 국화단은 일본정원의 풍경과 건물이 조화된 정원미를 살려 설치되어있으며 국화의 특색과 독자의 양식을 기초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국화의 종합적인 아름다움과 장식을 만끽할 수 있게 설계,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국화단 전지회장은 일본정원 중안입구로 들어가십시오.